

지역 中企·서남권 반도체 키운다... 지방금융 역할 ‘톡톡’

JB금융이 기업금융 중심의 대출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생산적 금융’ 확대에 속도를 낸다.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포용적 금융’ 기조도 설정했다. ‘지역과의 상생’을 핵심 추진 목표로 서남권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JB금융그룹은 오는 2030년까지의 공급 목표액을 공개한 다른 금융지주들과 달리 별도의 중장기 공급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JB금융그룹이 올해 말까지 약 8조원 안팎의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공급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전체 자산규모 대비 연간 공급액으로 환산하면 다른 금융지주들보다 많은 금액이다.

JB금융은 생산적 금융 부문에서는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해 경쟁력 제고에 힘쓰는 한편, 대기업 대출을 늘려 대출 건전성을 개선한다.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인 주담대 등 부동산 대출 취급은 줄인다. 비은행 계열사를 중심으로 첨단·벤처사업에 대한 자본투자도 확대한다. 포용적 금융 부문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부담 완화 뿐만 아니라 금융사각지대 해소, 맞춤형 대출 공급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개선에도 힘쓴다.

9 JB금융

JB금융그룹

◆ 지역 중소기업 성장지원

JB금융의 생산적 금융 전략은 ‘지역 재투자’와 ‘지역 전략산업 육성’이다.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한편, 대기업 대출 취급도 늘려 대출 건전성도 확보한다. 생산적 금융 이행 과정에서 가계금융 중심으로 치우쳤던 대출 포트폴리오를 경제적 생산성이 높은 기업금융 중심으로 재편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는 지자체나 공공기관과 협업한 보증 상품을 공급해 금융 비용을 낮춘다. 지주사에 설치한 ‘JB 생산적 금융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 및 지역 신보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전북은행 및 광주은행을 통해 특례보증 대출을 적극 취급한다.

은행 계열사의 기업대출 심사 과정에는 비재무적 데이터를 도입해 대출 문턱을 낮춘다. 신용평가사와의 협업을 통해 은행 계열사의 대출심사 과정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기업 평가를 반영한다. ESG 평가를 통해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고, 매출·단보에 치우쳤던 기존 기업 평가 체계를 고도화한다.

올해 말까지 약 8조 자본 공급 추산
기업금융 중심 대출 포트폴리오 재편
비재무적 데이터로 대출 문턱 낮춰
고부가가치 스타트업에 자금 출자
서남권 반도체단지 조성 적극 동참
장기 연체자에 적극 채무조정부터
中企·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
외국인금융센터 출범... 전용 대출

비은행 계열사는 지역 혁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부가가치가 큰 벤처·스타트업 영역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출자하며, 자본투자를 통해 지역 기업과의 동반 성장도 추진한다.

JB금융은 정부의 서남권 반도체단지 조성 목표에도 적극 동참한다. 광주은행 내에 ‘반도체산업 금융지원 추진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투자 유치 이후의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지방금융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도 검토한다.

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7월 진행한 2분기 컨퍼런스콜에서 “서남권 반도체단지 조성하고 관련해 총괄적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광주은행 직속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며 “지역에 투자가 발생한다고 지금이 지방은행과의 거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지역 투자의 의사결정에서 지방금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JB금융의 역할을 찾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기홍 JB금융 회장

◆ 취약계층 금융접근성 제고

JB금융은 ‘포용적 금융’ 차원에서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에 힘쓴다.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 연체자의 경제복귀를 지원하며, 불경기 장기화로 경영난에 빠진 소상공인의 재기도 지원한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외국인의 대출 문턱을 낮추고,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비금융적 지원도 추진한다.

JB금융은 지역 신보와 협력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광주은행은 올 상반기 전남신보와의 협약을 통해 부실 징후가 있는 업체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경영개선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연체 발생 이후 회생 가능성이 큰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회생지원보증’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전북은행도 전북신보와 연계한 ‘비대면 원스톱 보증’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의 대출 문턱을 낮췄다.

제도권 대출 이용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한다. 전북은행은 지난 2025년까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햇살론뱅크 등 중·저신용자 대상 정책금융상품을 은행권에서 가장 많이 취급했으며, 올해 들어 관련 상품이 햇살론일반과 햇살론특례보증으로 재편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공급을 지속 중이다.

JB금융은 사회 구성원으로 부상한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금융 공급에도 적극적이다. JB금융 계열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서남권 이외에도 외국인 비중이 큰 수도권 주요 도시에 외국인금융센터를 출점해 운영 중이다. 기존 신용평가체계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대안신용평가 체계도 도입해 전용 대출을 공급한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 대출 공급 가운데 약 60%를 JB금융그룹 계열사가 공급했다. 외국인근로자, 유학생을 위한 금융교육도 실시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비금융적 지원도 확대한다. JB금융은 지역 자립준비청년, 다문화가정 자녀 등 미성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중이며, 최근에는 지자체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기본권 보장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① 박춘원 전북은행 은행장(오른쪽 네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전북은행의 안산외국인금융센터 개점을 기념하고 있다. /전북은행

② JB금융그룹은 지난 3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외국인 디지털 신원확인 기반 금융서비스 혁신’ 토론회에 참석해 ‘장기 체류 외국인·재외동포 전용 비대면 계좌 개설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JB금융

◀ JB금융지주 본점. /JB금융

